

건설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「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」 출범

- 민간 주축의 스마트건설 협의체로서 표준 제정, 선도 프로젝트 선정 등 주도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7월 26일 오후 서울 건설회관에서 스마트건설 확산방안과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해 산·학·연·관이 참여하는 「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」를 출범(약 500명 참석 예정, 사전등록 기준)한다.
 - (구성) 민간 기업(대·중소, 벤처기업 등 총 300개)이 논의를 주도하고, 학계·연구원 및 공공 등이 협력하여 실효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구성되었다.
 - (운영) 핵심 기술(6개)별로 확산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기술위원회와 기술위원회 간 공통이슈를 다루는 특별위원회로 구분되며,
 - 기술위는 대형 건설사가 위원장을 맡아 출범식 이후 본격 운영되고, 특별위는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제도 분야부터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.

구 분	기술위원회						특별위원회
	BIM	OSC	건설 자동화	디지털 센싱	스마트 안전	빅데이터·플랫폼	제도
위원장	DL 이앤씨	GS 건설	삼성 물산	대우 건설	포스코 이앤씨	현대건설	건설산업연구원& 건설정책연구원

- (역할) 스마트 기술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고,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한편,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(안)을 마련하는 등 혁신을 주도한다.
- 출범식은 사전 행사(기술위 리딩사의 기술시연), 본행사, 총회 순으로 진행되며, 본행사부터 유튜브 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.
 - 본행사에서는 얼라이언스 주제영상을 시작으로 초대 의장사(현대건설) 인사말, 국토교통부 축사, 출범 기념 세레모니가 펼쳐지며,
 - 총회에서는 얼라이언스 정관, 위원회별 운영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.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“얼라이언스에서 논의되는 사항이 제도 개선은 물론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”면서,“얼라이언스를 발판 삼아 글로벌 스마트 건설시장을 선도할 수많은 스타기업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태오 (044-201-3549)
		담당자	사무관	나귀용 (044-201-3550)
<공동>	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건설지원센터	책임자	센터장	한재구 (031-910-0574)
		담당자	수석연구원	이윤성 (031-910-0322)



기술과 협력의 혁신, 새로운 미래를 세우다

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출범식

● LIVE



▶ YouTube

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출범식 을

검색하세요.

일시 2023. 7. 26.(수) 14:00

 장소 서울 건설회관 2F 대회의실
 (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)

 참석자 국토교통부, 한국건설기술연구원,
 주요 발주청·학회·협회·연구원, 얼라이언스 참여기업 등

1부 | 출범식 |

- 주제영상
- 인사말
- 축사
- 강소기업 발표
- 출범기념 세리머니/기념촬영

2부 | 총 회 |

- 정관 의결
- 위원회별 운영계획 발표

전시 | 기술시연 |

- 운영시간 : 13시 ~ 18시
- DL이앤씨, GS건설, 대우건설, 삼성물산,
포스코이앤씨, 현대건설



국토교통부



KICT 한국건설기술연구원